

언어 영역

- 1. 먼저문제지에 성명과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 답안지에 수험 번호 ,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 에 따라 표기하시오 .
- 문항에 대한 답안지 ,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표시하시오 . 1 점과 3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씩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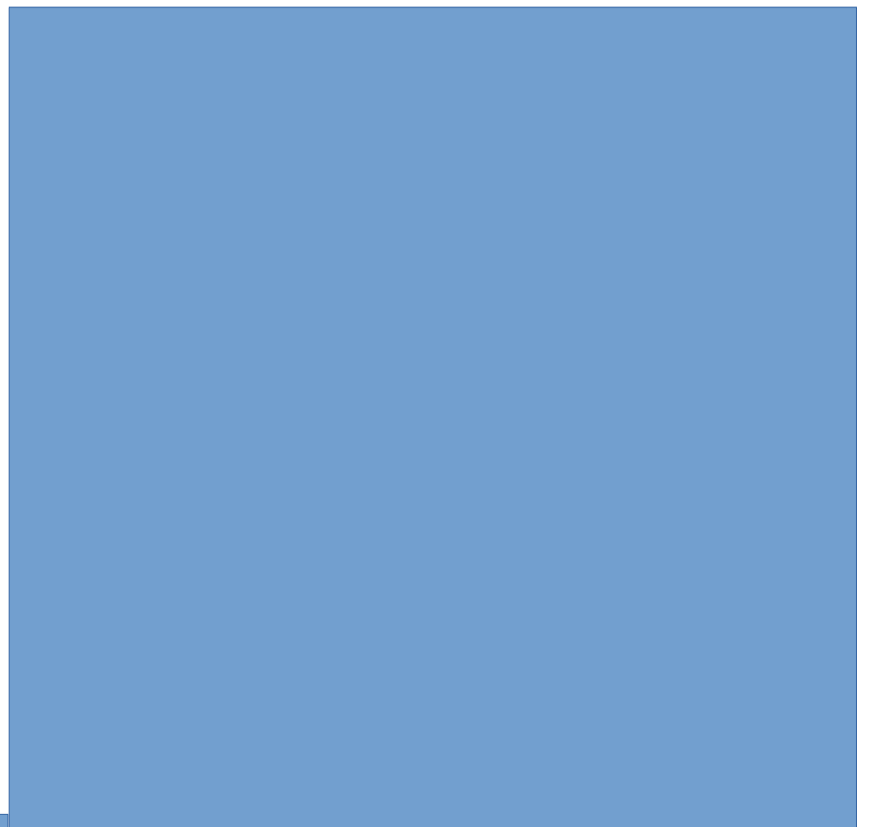
1. (물음) 온돌의 단면도에서 '개자리'에 해당하는 곳은? [1 점]

〈온돌의 단면도〉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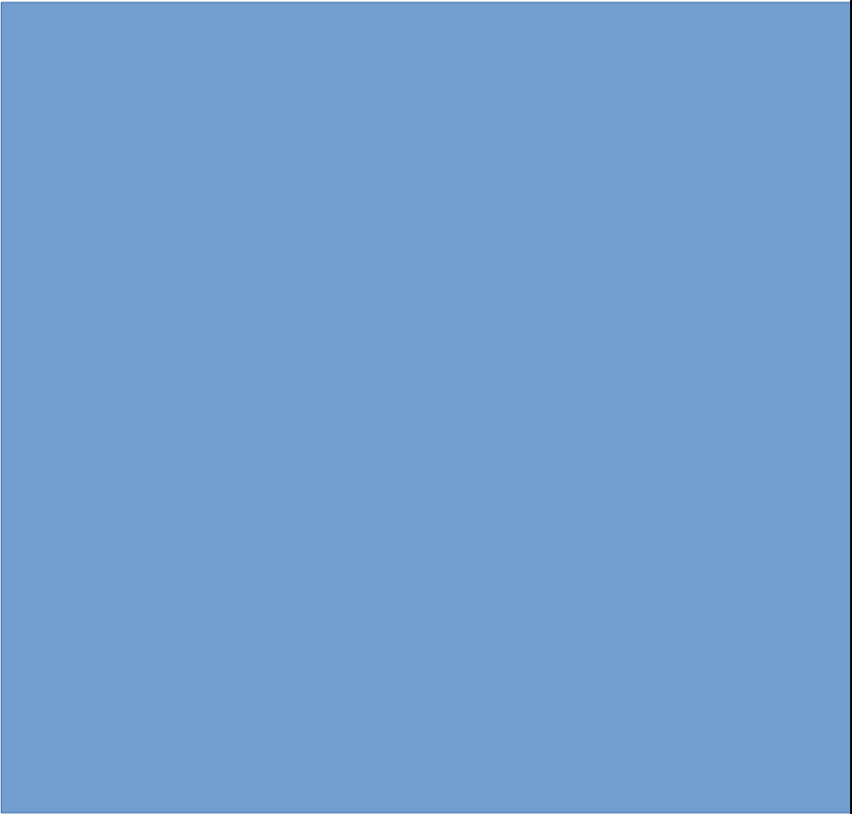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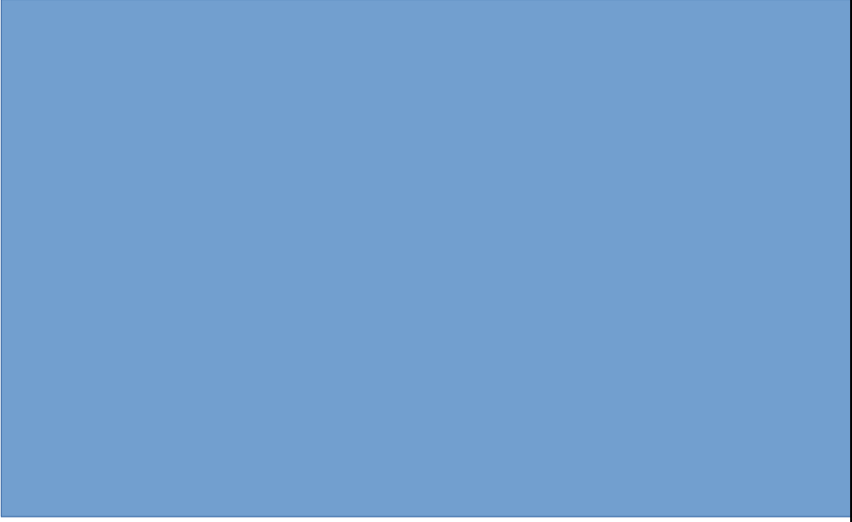
한 것은?



언어 영역

3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루? 밭에 가 절하구 논에 가 절해야 쏜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허지 않군 사람헌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제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소작인들헌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앉어 소출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가꾸는 덴 단돈 일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인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이 신의(?)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약품비료(????)]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델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을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허게 진실허게 해라.”

“.....”
“네가 가업(Ⅱ?)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군 탄허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헐 길을 열었구, 그제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옥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답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 말했지만 너무 문서쪽만 쥐구 서울 앞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파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마 훑는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림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루 태났던 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밭을 내논다구 해 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텃밭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넘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값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친만은 내가 서울루 그때 데려가렘. 난 셈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 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 허였다. 자기의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0?)되는 일종의 결별(A?)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중략>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만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 굽으로도, 가운데굽으로도 끝엿굽으로도 맑기만한 소담한 물살이 우쭈우쭈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장으로 가 광 굴러 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꼬덕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르르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의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 이태준, 돌다리 -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독점 기업은 많은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독점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이윤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적당히 줄여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똑같은 조건하에 있는 시장이라도 독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상품 생산량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경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준은 완전 경쟁이 실현된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독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독점 기업이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상품 생산량을 스스로 줄이기 때문이다. 상품 생산량이 최적에 이를 때 사회 후생이 가장 커질 수 있다면, 독점 체제하의 사회 후생은 이보다 더 작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상품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사회 후생이 줄어드는 것을 독점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손실의 첫 번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독점의 존재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독점 체제 하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독점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가 편중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호 가문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독점 이윤의 획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과점 체제에서 나온 막대한 이윤이 재벌의 급속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부의 편중은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병폐는 독점 시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독점 기업이 경쟁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낭비적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독점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높은 진입 장벽을 쌓아 잠재적인 경쟁자가 감히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엄청난 돈을 써 이곳저곳에 광고를 한다거나, 관료들을 구워 삶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로비 활동에 쏟아 붓는 것은 모두 진입 장벽을 견고하게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런 돈과 노력을 비용 절감이나 품질 개선 같은 유용한 목적에 쏟아 부었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었을 것이다. 단순히 진입 장벽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낭비된 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독점 기업은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면, 기업은 마지막 남은 효율성까지 추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 덕분에 충분한 이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독점 체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자도 없이 마음대로 시장을 요리할 수 있는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즈음에는 부채를 보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아직도 부채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홍보용 기념물에서나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원래 부채는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는 안 될 일용품이자 필수품이었다. 부채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펼 때마다 기분과 흥을 돋구는 휴대용 미술품이었고 무더위에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청량제였다. 계절과 더불어 노닐면서 부채를 통하여 자연의 바람을 즐겼던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채란 우리 조상들의 생활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이상을 나타내 주는 상징물이었다고 할 것이다. 부채는 조선조에 와서 대유행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에 그림이나 글씨를 그려 즐겨 사용해 왔다. 이러한 부채 그림을 선화(仙畵)라고 한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현존하는 각종 선화의 소재들은 매우 다양해서 산수(山水)·화조(花鳥)·인물(人物)·풍속(風俗)·사군자(四君子) 등 동양화의 모든 소재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글씨의 경우에도 해서(楷書)·행서(行書)·초서(草書)·전서(篆書)·예서(隸書)의 5체가 두루 쓰이고 있다. 현존하는 선화들은 시대적으로 오랜 고화일수록 더욱 더 정성을 들인 면면을 볼 수 있다. 특히 겸재나 단원의 선화는 단순한 선화라기보다 완전한 한 폭의 그림으로서 당당한 면모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선화를 대하는 작가나 수요자의 인식과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렇다면 선화가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

특기할 만한 것은 선화의 독특한 구도 감각이다. 부채는 어차피 장방형(長方形)이나 종방형(縱方形)이 아닌, 부채 모양 화면에 따른 색다른 구도의 그림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구도 감각은 그만큼 매우 변화 있고 이채로울 수밖에 없다. 작가들은 부채만의 화면 형태를 통해 독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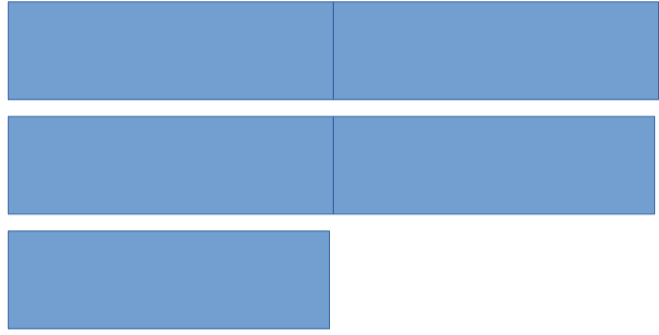
선화의 구도 방식을 완성시켰으며 이러한 기발한 구도 감각은 우리의 선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圓形) 구도도 아니고 방형(方形) 구도도 아닌 부채형 구도의 진면목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어 놀라울 뿐이다. 또한 부채는 들고 다니기 편한 이점 때문에, 아무 데서라도 간편하게 펴놓고 그리기 쉬운 만큼 지금의 스케치북 구실로서도 손색이 없어 더욱 애용되고 성행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선화는 점점 유행하여 19세기 중반 경에는 거의 모든 작가들이 선화를 남기고 있어서 그야말로 한국 선화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선화는 18세기를 거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먼저 18세기에는 산수화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주로 화면이 그림으로만 꽉 채워졌고 글씨의 양은 많지 않았다. 서체의 양식도 해서(楷書)와 행서(行書)가 주로 유행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선화의 소재는 산수(山水)에서 사군자(四君子)나 수석(水石) 등 단순하고 간소한 소재로 바뀌었다. 그리고 서체의 양식도 추사체의 영향으로 전서체와 예서체로 바뀌어 갔다. 또한 선화의 작가층의 범위도 확대되어서 선화의 변화가 조선 후기 회화의 변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선화의 변화는 선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작가의 자세 변화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전까지 선화에 대해서 작가들이나 수요자가 지니고 있었던 진지한 인식이나 마음가짐이 사라지고, 선화를 여기(兒戲)*와 여묵(兒墨)**을 이용한 소예술(小藝術)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회화에서 당당했던 선화의 비중이 많이 감소되고 있어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언어 영역

8



언어 영역

9

[28~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 마당에 나서니 ???□ㄴ??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7?????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0a??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ㄷ??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ㄴ??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ㄴ8? ???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Bq E?㉞?Ⅱ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㉞?㉞ㄴ??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오. ?나↓???ㅈ
 - 정약용, 보리타작[???] -

노래가 낮기는 그 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말은
 바닷가에 가 밧어 버렸다.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ㄱ?)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 서정주, 꽃밭의 독백 -

(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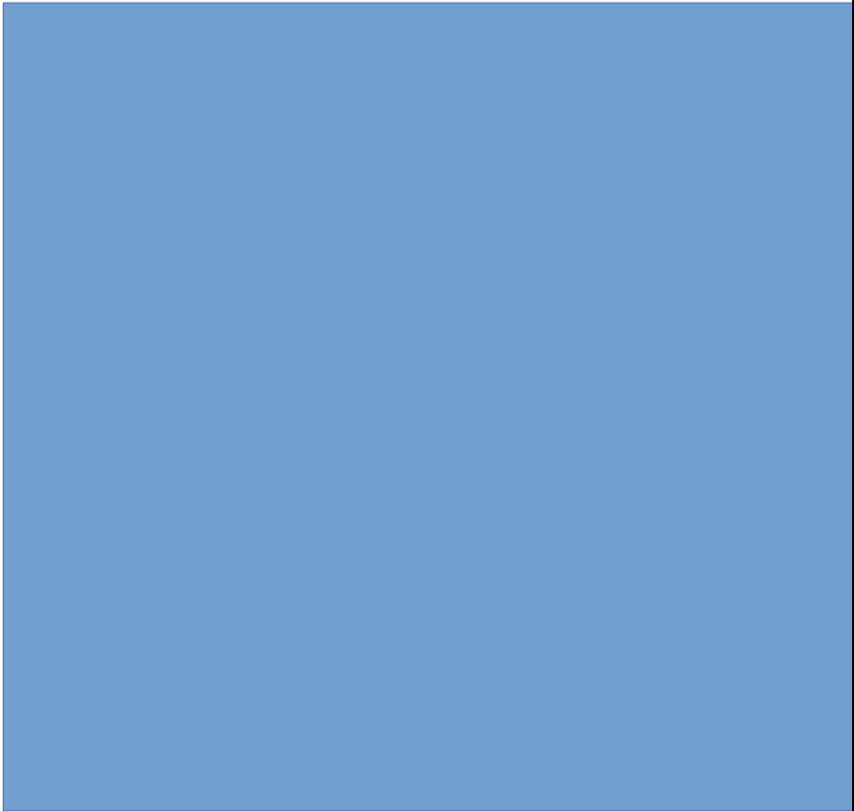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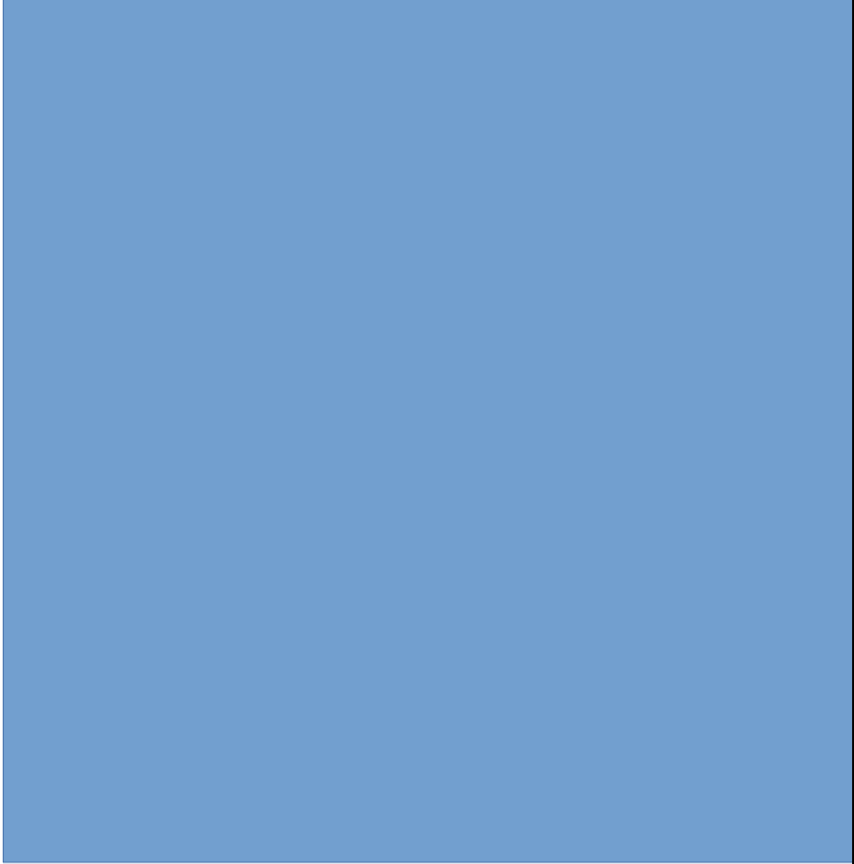
수를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실
 따라서 가면
 아우성은 절로 갈았고
 처음 보는 수풀
 정갈한 자갈들의
 강변에 이른다.
 남향 햇볕 속에
 수를 놓고 앉으면
 세사 번뇌(???a)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 내을 듯
 머언
 극락 정토(psⅡ??)가는 길도
 보일 성 싶다.



언어 영역

10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philosophy)이라는 말의 어원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서양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철학을 애지학(??? :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고 옮기기도 한다. 이 말을 처음 쓴 소크라테스는 당시 스스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만하며, 지식의 소매상 노릇을 하던 소피스트[지자(??)]들을 통렬히 비난했다. 이들과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지식을 이미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동경하며 갈망하는, 다시 말하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필로소포스[철학자]라고 했다.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가능하다. 사랑이란 무소유의 상태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끊임없이 그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여튼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철학은 지혜의 무소유 상태에서부터 지혜의 소유 상태로의 과정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며, 그런 뜻에서 철학은 언제나 진행형이며 결코 완결될 수 없는 학문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 교만은 이런 의미에서 '철학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철학자의 일차적 자격 요건이 바로 지적인 겸손이다. 지적으로 겸손한 자만이 철학이라는 고귀한 활동에 동참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다. 자기가 진정 아는 것이 없다는 자각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 이러한 자각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독단과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크고 작은 우상(??)들을 남김없이 파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우상의 파괴론을 철학적으로 전개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다. 그는 신의 존재 등 몇 가지 가정(가정)을 자명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이 전제로부터 연역 논증을 통해 각종 진리들을 도출하는 중세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즉 진정한 지식은 모든 독단과 편견을 버린 후 □경험에 바탕을 둔 귀납적 논증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진정한 지식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인간의 편견인 우상을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라고 부르고, 이 네 가지 우상을 파괴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종족의 우상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며, 무엇이든 의인화해서 생각함으로써 하느님마저도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소는 소의 형상을 한 하느님만을 생각할 것이며, 말은 말의 형상을 한 하느님만을 생각할 것이라고 한다.

동굴의 우상은 개인마다 각자 자기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 상이한 인생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세상 모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며 서로 옳다고 우기게 된다. 각자 자신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만의 동굴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허한 태도로 타인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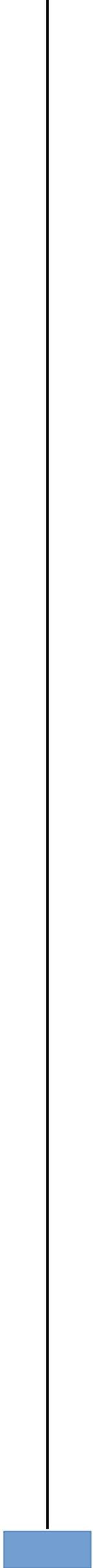
시장의 우상은 말로 인해 생겨나는 갖가지 우상을 말한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을 상징한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없는 사실인데도 말만 생겨나 떠돌게 됨으로써 편견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극장의 우상은 권위로 인해 생겨나는 우상을 말한다. 극장 무대에서 배우들이 분장을 그럴 듯하게 하고 조명을 휘황하게 비추면 우리는 그것이 현실인 양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어떤 주장이건 그것에 권위의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쉽게 믿어버리는 버릇이 있고, 그 때문에 편견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같은 갖가지 편견과 우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철학적 자기 반성과 성찰, 그리고 독자적인 사고와 홀로서기를 향한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언어 영역



[40~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언어는 생성, 변천, 소멸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간다. 또한 각 언어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면서 변천하여 간다. 그런데 어떤 언어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잘 변동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언어는 쉽게 변하는 것도 있다. 한 나라의 여러 지역 방언들도 이와 같은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어떤 지역의 방언은 빨리 변천하여 옛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어떤 지역 방언은 그 변천의 속도가 느려서 아직도 옛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방언의 변천은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인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는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전파가 빨리 이루어진다. 문화적으로는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발달하지 못한 곳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대개의 표준말이 수도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도시의 언어가 시골의 언어에 침투됨이 쉽다는 말과 같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서 지배를 받는 지역으로 전파된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한 방언의 전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언의 특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언의 유지성이다. 각 지역의 방언은 그 유지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영향을 끼쳐서 하나의 방언일지라도 사실은 여러 방언의 요소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각 방언을 엄밀히 분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방언은 한편으로는 통일되려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즉 국가, 민족, 문화가 동일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 방언의 공통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표준어의 제정이다.

(나) 신체 언어는 몸으로 의미를 표현하여 상대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인데, 사람들은 음성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체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신체 언어는 음성 언어와 어휘 면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음성 언어가 민족에 따라 다르고, 같은 민족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방언이 있고, 같은 지역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개인 방언이 있듯이 신체 언어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또한 음성 언어에 동음어와 동의어가 있듯이 신체 언어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음성 언어에서 어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며 새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신체 언어도 이런 점에서 음성 언어와 비슷하다.

인사하는 행위는 악수, 절, 껴안기, 볼에 입맞추기 등 민족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서구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악수가 인사의 한 형식으로 일반화하였다. 악수는 지위, 신분,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이 잠시 동안이지만 동등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평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인데, 이는 다른 인사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최근에 나타난 인사법이라고 본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인사법은 지위, 나이, 신분 등이 아래인 사람이 위사람에게 몸을 낮춰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과는 비교가 된다.

신체 언어는 표현할 수 있는 몸의 부위와 방법이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어서, 신체의 부위나 행동이 표현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라마다 비슷한 표현 동작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신체 언어 어휘가 많다. 한편으로는 우연이지만 나라가 다른데도 같은 의미의 어휘가 같은 동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신체적 표현의 제한성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지만 민족마다 신체 언어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신체 언어가 다르기도 하다. 엄지와 검지의 끝을 대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좋다, 잘 되었다'와 같은 긍정의 의미이다. 그런데 프랑스 남부에서는 '없다, 무가치'를 뜻하고,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지방에서는 '항문'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돈'을 의미해 왔는데, '잘 되었다, 좋다'라는 외래 의미가 들어와 쓰이면서 한 동작이 두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반면 음성 언어에서의 동의어처럼 한 의미가 여러 형태의 동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쓰인다.

언어 영역

〈앞부분의 줄거리〉 내가 나이 열여덟 살에 우울증에 걸려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민 영감을 소개하였다. 나는 기뻐하며 그와 함께 놀러 오라고 하였다.

민 영감이 나를 찾아 왔는데, 나는 마침 벋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민 영감은 서로 인사도 나누기 전에 통소 부는 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그의 뺨을 치며 크게 꾸짖었다.

"주인은 즐겁게 놀자는데, 너는 어째서 성난 꼴로 있느냐?"

나는 깜짝 놀라서 그에게 까닭을 물었다. 민 영감이 말하였다.

"저 놈의 눈알이 잔뜩 튀어나오도록 사나운 기운을 품었거든요. 저게 풀낸 게 아니고 무엇이겠소?"

내가 크게 웃었더니, 민 영감이 또 말하였다.

"꼭 통소 부는 놈만 성난 게 아니라고. 피리 부는 놈은 얼굴을 돌리고 우는 듯하고, 장구를 치는 놈은 이마를 찌푸린 채 시름겨운 듯하다. 평생 보지 못한 책을 뽑아 내어 각기 두세 번 눈으로 훑어본 뒤에 외워 보려고. 만약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벌을 받기로 약속하는 게 어떻겠소?"

나는 곧 그들을 돌려보내고 민 영감을 맞아 들여 앉혔다. 그는 비록 몸집이 작았지만, 흰 눈썹이 눈을 덮었다. 그가 "내 이름은 유신(??)이고, 나이는 일흔세 살이라오."

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나에게

"당신은 무슨 병이 들었수? 머리가 아픈 거유?"

하고 물었다.

내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또 "배가 아픈 거유?" 하고 물었다.

내가 또 "아니오." 대답했더니,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병이 아니라고."

㉢그는 곧 지게문을 열고, 들창을 걷어 괴었다. 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자 내 마음이 차츰 시원해져서,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그래서 민 영감에게 말하였다.

"나는 특히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밤에는 잠을 못 잔다오. 이게 바로 병이지요."

민 영감이 몸을 일으켜 나에게 치하(??)하였다. 내가 놀라면서

"영감님, 무엇을 치하하신단 말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은 집이 가난한데 다행히 음식 먹기를 싫어한다니,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소? 게다가 잠까지 없다니, 낮밤을 아울러서 나이를 갑절이나 사는 게 아니겠소?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나이를 갑절로 산다면, 그야말로 수(?)와 부(?)를 함께 누리는구려."

얼마 뒤에 밥상이 들어왔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손가락을 들지 않았다. 이것저것 골라서 냄새만 맡을 뿐이었다. 민 영감이 ㉣갑자기 크게 성내며 일어나 가려고 하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영감님, 왜 노해서 가시렵니까?"

물었다. 민 영감이 말했다.

"당신은 손님을 불렀으니 손님에게 먼저 음식을 권해야지. 어째서 혼자 먹으려고 하오? 이걸 나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나는 사과하면서 민 영감을 붙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빨리 밥상을 올리게 하였다. 민 영감은 사양하지 않고, 팔뚝을 걷어붙였다. ㉤손가락과 젓가락에 음식을 가득 올렸다. 나는 저절로 입안에 침이 흘렀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코밀이 트였다. 그제야 옛날처럼 밥이 먹혔다.

밤이 되자, 민 영감은 눈을 감고 단정하게 앉았다. 내가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걸었지만, 그는 더욱 입을 다물었다. 나는 몹시 무료하였다. 한참 뒤에 민 영감이 별안간 일어나서 촛불 퐁을 굵어 버리며 말하였다.

각기 두세 번 눈으로 훑어본 뒤에 외워 보려고. 만약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벌을 받기로 약속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지요."

대답하고는 곧 시렁 위에서 『주례(??)』를 뽑았다. 그 책에서 민 영감은 '고공(㉦△)편'을 골랐고, 나에게는 '춘관(㉦?)'이 돌아왔다. 잠깐 뒤에 민 영감이

"나는 벌써 다 외웠다오."

하고 나를 일깨웠다. 나는 아직 한 차례도 훑어보지 못한지라, 깜짝 놀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청하였다. 영감은 자꾸만 재촉하여,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 나는 그럴수록 외울 수가 없었다. 졸리운 듯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하늘이 밝은 뒤에야 민 영감에게

"어제 외운 글을 기억하시오?"라고 물었다.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외우지 않았다고."

- 박지원, 민웅전 -

* 기화(㉦?):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속에서 합쳐지면서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가려는 몸과 가지 못하는 몸이 화해하는 저녁 무렵의 산 속 오르막길 위에서 자전거는 멈춘다. 그 나아감과 멈춤이 오직 한 몸의 일이어서, 자전거는 땅 위의 일엽편주(???)처럼 외롭고 새롭다.

몸과 길은 순결(>)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되는데, 몸과 길 사이에 엔진이 없는 것은 자전거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몸이 확인할 수 없는 길을 가지 못하고, 몸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없지만, 엔진이 갈 수 없는 모든 길을 간다.

구르는 바퀴 안에서, 바퀴를 굴리는 몸은 체인이 매개하는 구동축(トバ?)을 따라서 길 위로 퍼져 나간다. 몸 앞의 길이 몸 안의 길로 흘러 들어왔다가 몸 뒤의 길로 빠져나갈 때,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은 몸이 곧 길임을 안다.

길은 저무는 산맥의 어둠 속으로 풀려서 사라지고, 기진(L?)한 몸을 길 위에 누일 때, 몸은 억압 없고 적의 없는 순결한 몸이다. 그 몸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 앞에서 굳히 잠든다.

땅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비기면서, 다 가고 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그래서 자전거는 내리막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도 오르막을 오를 수 있다.

힘을 쪼개가면서 힘든 고개를 넘어간다. 집중된 힘을 폭발시켜 가면서 고개를 넘지 못하고 분산된 힘을 겨우겨우 잇대어가면서 고개를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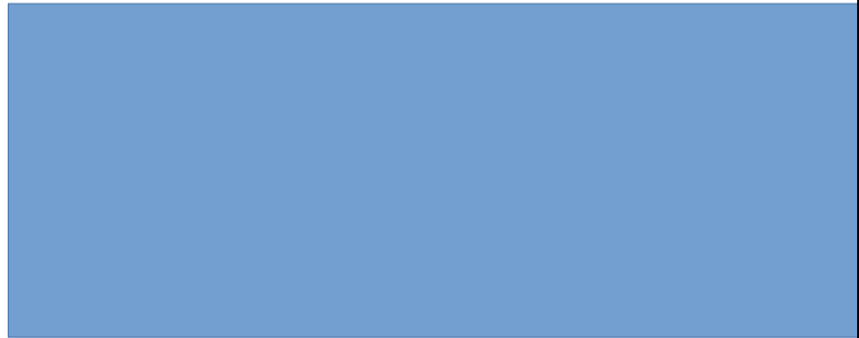
1 단 기어는 고개의 가파름을 잘게 부수어 사람의 몸 속으로 밀어넣고,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의 몸이 그 쪼개진 힘들을 일련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길 위로 흘러 보낸다. 1 단 기어의 힘은 어린애 팔목처럼 부드럽고 연약해서 바퀴를 굴리는 다리는 헛발질하는 것처럼 안쓰럽고, 동력은 풍문처럼 아득히 멀어져서 목마른 바퀴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데, 가장 완강한 가파름을 가장 연약한 힘으로 쓰다듬어가며 자전거는 굽이굽이 산맥 속을 돌아서 마루턱에 닿는다.

내 몸이 나의 기어인 것이다. 오르막에서, 땀에 젖은 등판과 터질 듯한 심장과 허파는 바퀴와 길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 땅에 들러붙어서, 그것들은 함께 가거나, 함께 쓰러진다.

기진한 삶 속에도 신비는 있다.

오르막길 체인의 끊어질 듯한 마디마디에서, 기어의 톱니에서, 뒷바퀴 구동축 베어링에서, 생의 신비는 반짝이면서 부서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흐르고 구른다. 땅 위의 모든 길을 다 갈 수 없고 땅 위의 모든 산맥을 다 넘을 수 없다 해도, 살아서 몸으로 바퀴를 굴려 나아가는 일은 복되다.

- 김훈, 자전거 여행 프롤로그 -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강물이 생사(??)가 명멸(??)하는 시간 속을 흐르면서 낡은 시간의 흔적을 물 위에 남기지 않듯이, 자전거를 저어갈 때 25,000분의 1 지도 위에 머리카락처럼 표기된 지방도·우마차로·소로·임도·등산로 들은 물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몸 밖으로 흘러 나간다. 흘러 오고 흘러 가는 길 위에서 몸은 한없이 열리고, 열린 몸이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생사가 명멸하는 현재의 몸이다. 이끄는 몸과 이끌리는 몸이 현재의 몸



언어 영역

히에론'에게 수학을 가르치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임금님이 그에게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다 쓰는가?"라고 물었는데, 이에 그는 지렛대와 도르래로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것 등이 모두 수학적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르키메데스 자신은 수학의 쓰임보다 수학을 통해 자연에 숨어 있는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었다.

수학은 물건을 헤아리거나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수(?)·양(?)에 관한 학문으로, 철학·천문학·약학 등과 함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옛날부터 발달해 내려왔고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그 발전 양상은 눈부시다.

수학은 인간의 사유(??)에 의하여 구성된 추상적인 과학으로, 추론(??)의 전제(??)로 삼는 공리(公理)*라 일컫는 일군의 명제(??)를 가정하여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채택하는 공리를 달리 선택하면 결론도 달라진다. 수학은 그 본질적인 추상성(???) 때문에 전제로 삼은 공리에 보다 적합한 구체적인 현상을 적용시키면, 이 공리에서 이끌어 낸 결론이 그 구체적인 현상을 선명하게 해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을 '과학의 언어'라고 말하기도 하며, 자연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는 물론, 사회·인문·군사 등 모든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더욱이 수학은 이러한 실용성 측면뿐만 아니라, 숫자를 일정한 순서대로 결합하다 보면 수학이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었으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보고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수학은 경제 분야를 비롯한 일상 생활 전반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미분방정식과 같은 수학은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973년 블랙과 솔츠 같은 수학자들은 미분방정식 이론이 금융 시장에도 잘 적용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즉 미분방정식을 통해 금융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로 뉴욕의 금융 시장에서는 수천 명의 수학자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국민 연금이나, 퇴직금, 의료보험금 등 경제 활동에서 파생되는 경영 문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 기법도 수학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학자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수학을 이공계로 갈 사람들만 공부하면 되는 학문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수학은 단순히 과학을 배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는 바르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언어이며 인간의 마음을 종합적으로 훈련시키는 학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학이 비록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하더라도, ①눈에 보이는 쓰임에만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돈은 쓰임이 많아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과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3세기경 이탈리아 시칠리섬의 시라쿠사에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살았는데, 그는 임금인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이 실용과 이론도 둘이 아니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질병은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들에 대한 인체의 정해진 반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인체의 구조나 기능이 교란될 때 생긴다. 따라서 질병 유발 인자들에 대한 인체의 정해진 반응이 이들을 잘 처리하여 인체 기능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면 질병은 발생하지 않는다. 질병 유발 인자의 하나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해도 면역계가 이를 잘 처리하여 인체 기능이 교란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고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로는 1)외상이나 방사선, 고열이나 한냉 같은 물리적 인자, 2)외부로부터의 수많은 종류의 화학 물질이나 세포 내부의 대사물, 3)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같은 생물학적 인자, 4)영양분의 결핍이나 과다, 5)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6)스트레스, 7) 비정상적인 유전자 등이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들에 노출된다. 오랜 진화 과정에서 사람의 세포는 여러 수준의 안전 장치들을 발전시켜 질병 유발 인자들에 반응함으로써 생존하여 왔다. 질병 유발 인자들이 이러한 안전 장치를 뚫고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교란시키면, 염증성 질환이나 변성 질환, 종양 등으로 크게 구별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질병 유발 인자들에 대한 인체의 반응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체의 모양, 작동 방식과 범위 등 모든 생명 현상은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전자는 DNA 위에 네 종류의 염기 서열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백질 하나를 만들고 조절하는 데 필요한 염기 서열의 모음을 유전자라 한다. DNA 상의 유전자들은 외부로부터 특정한 자극이 오면 예정된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자신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아미노산 순서를 지정하여 특정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단백질을 일정한 양만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각자 자신에 부여된 일을



순서대로 수행함으로써 외부 자극을 처리하게 되며, 이 단백질군이 일한 결과가 우리가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표현형[유전학상 단순히 외형상으로만 본 형질]이다. 사람은 약 30억 알파벳[염기] 길이의 DNA 위에 약 10만 개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데, 이 유전자 중에는 수정 후 태아의 각 기관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발생 유전자, 각 세포가 일정한 기능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분화 유전자, 세포 내에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대사 유전자,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 노화나 세포의 죽음에 관여하는 유전자 등 수많은 종류의 유전자가 있어 정해진 순서대로 이들이 협력하여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처리한다.

① 아버지의 게놈이 한 번 복사되어 자손의 수정란에 넘겨지면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의 단백질들을 순서대로 만들어 일을 시킴으로써 태아가 형성된다. 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며, 수명이 다해 죽음에 이르는데, 만약 이 정보에 이상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질병 유발 인자들에 대한 반응의 방식과 범위도 이와 관련된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관련 유전자들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받으면 인체의 정상 기능이 교란되어 병을 일으키거나 특정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된다. 따라서 어떤 유전자에 어느 형태의 결함이 일어나 특정한 질병이나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유발되는지를 찾아내는 일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 질병 유전자의 이상이 어떤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 정상 반응을 교란시켜 몸과 마음을 피폐시키는가를 밝히면 이를 차단할 약과 예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